

케이알엠, 에임퓨처와 AI NPU IP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 'LG전자 분사' 에임퓨처, 국내 최고 수준의 NPU IP 기술력 보유
- 에임퓨처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반도체 IP 통합 솔루션 사업 진출할 것



주식회사 케이알엠(대표 박광식)이 5월 21일 언론을 통해 NPU 개발기업 '에임퓨처'(대표 김창수)와 지난 5월 14일 AI NPU IP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 계약 및 사족 보행 로봇 Vision 60을 활용한 전략적 협업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임퓨처는 LG전자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LG전자 미주연구소에서 AI 핵심 기술을 연구하던 소속 연구원들이 분사해 2020년에 설립된 NPU 개발기업이다. 에임퓨처는 자체 설계에 기반한 NPU IP '뉴로모자이크'(NeuroMosAic)를 통해 모빌리티·로보틱스·스마트홈 분야에 최적의 엣지 컴퓨팅용 NPU를 제공하여 인공지능의 핵심 이슈인 멀티모달 AI 시대를 주도 하고 있다.

케이알엠은 이번 파트너십 계약 체결을 통해 에임퓨처의 AI NPU IP에 대한 일본 내 독점 판매권을 비롯한 유럽·아시아 등 글로벌 IP 판권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기존 반도체 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글로벌 개발·영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반도체IP 비즈니스

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사업으로 주력하고 있는 로봇 사업의 사족 보행 로봇 Vision 60에도 에임퓨처의 인공지능망 처리기술을 활용한 자체 AI 자율주행 플랫폼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케이알엠 박광식 대표는 "당사의 반도체 사업부는 오랜 반도체 제조·판매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신규 사업으로 AI 플랫폼의 IP 통합 솔루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에임퓨처와 같은 뛰어난 파트너와 함께 그 첫발을 내딛게 되어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미 다수의 글로벌 반도체IP 및 솔루션IP(AD·ADAS 등) 기업들과 파트너십 계약을 협의 중이며, 향후 IP 포트폴리오 확대 및 핵심 IP 내재화를 통하여 통합 IP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며 신규 사업의 성공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